

한라산학술대탐사 제1부 5년 長征 대단원 막내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3. 08.08. 00:00:00

한라일보가 대하기획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라산 학술대탐사 제1부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 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천과 계곡탐사는 지난 98년 12월 13일 첫 장도에 올라 최근 한라산 백록담 담수조사까지 만 4년 7개월 동안 계속됐다.

하천과 계곡탐사는 특별취재팀과 식물, 지질, 수자원, 곤충, 민속, 역사, 산악, 영상 등 관련 분야의 명망있는 전문가를 탐사위원으로 위촉, 한라산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지에서 발원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에서부터 원류까지 전 구간을 직접 답사하는 새로운 탐사방법으로 전개됐다.

탐사는 무수천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색달천(중문천)에 이르기까지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천구간 도보답사 거리만 4백25km.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에 이르는 길고도 험난한 노정이었다. 등산로와 하천탐사구간의 왕복거리까지 포함하면 실제 탐사거리는 1천여km가 넘는다.

탐사내용은 99년 신년호부터 올해 5월까지 매주 한차례씩 특집지면을 통해 1백66회 연재했다.

탐사는 수많은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제주와 한라산의 가치를 선양하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실분화구와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 '갯깍', 수행굴, 구린굴 등 지질·역사학적 성과 이외에도 산별른내의 '종의 피난처' 등 수많은 숨겨진 보고가 탐사를 통해 빛을 발했다.

탐사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속에 진행됐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동호인 그룹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이 탐사에 실제 동행하기도 했다.

한라산학술대탐사단은 제1부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 탐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부터는 제2부 '한라대맥' 종주탐사에 나선다. '한라대맥'은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쪽 우도에서 서쪽 차귀도를 잇는 제주섬의 최장축 라인으로 70여km에 이르며 오름이 집중 분포돼 있는 공간이다. 한라산대탐사는 앞으로도 쉼없이 계속된다.

본보가 대하기획으로 연재할 예정인 한라산대탐사 제2부 '한라대맥' 종주탐사는 이달초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하는 기획취재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